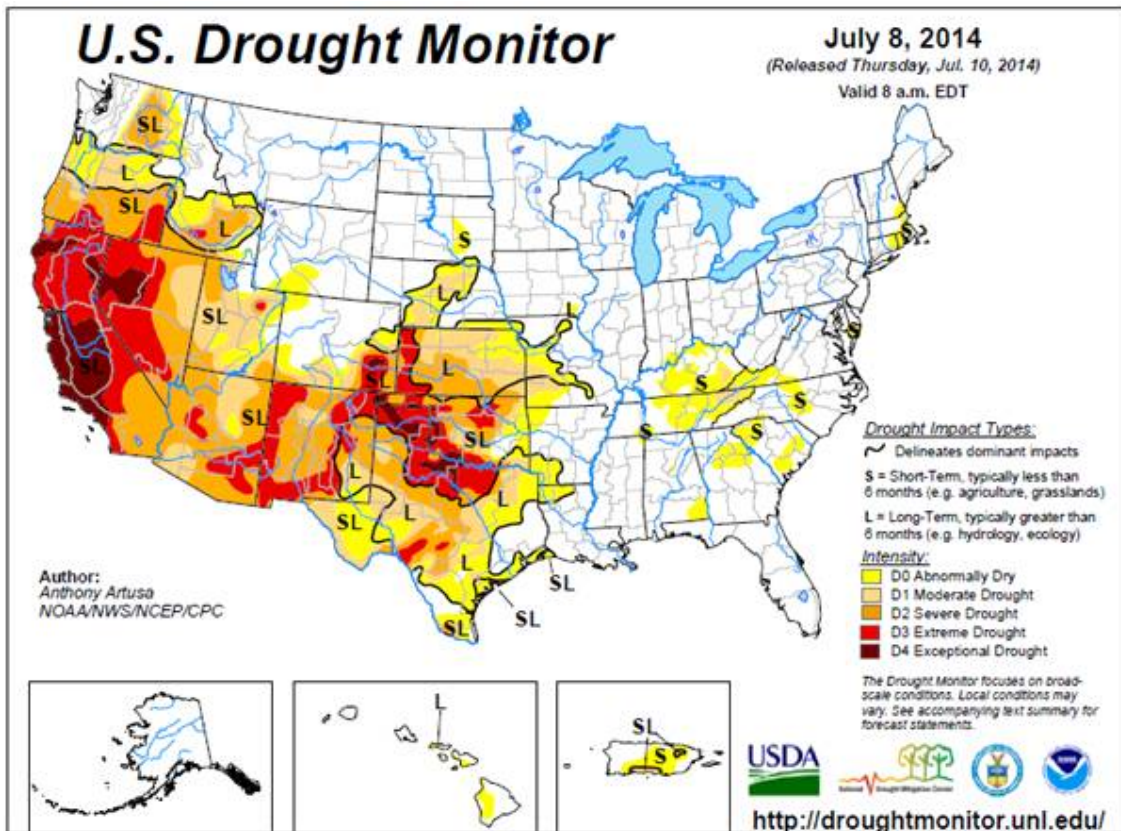


7월 1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28)

□ 미국 기후 현황(07/06~07/12)



남부 대평원 지역에는 다시금 덥고 건조한 날씨가 도래하였으며, 비가 필요한 여름작물의 경우 5월과 6월에 내린 잦은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토양 수분 결핍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부와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대다수의 중부 대평원, 중서부, 동부지역의 목초지와 여름작물에는 효과적인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역에서 총 강수량이 2인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남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단기간 발생한 건조한 날씨가 여름작물에 스트레스를 주었다. 한편, 북부 대평원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한랭한 날씨를 경험하였으며, 비가 내린 관계로 가을밀의 성숙과 봄철 파종된 작물의 생육발달도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몬순(우기) 대기로 인한 소나기는 아리조나와 콜로라도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를 발생시켰고, 덥고 건조한 날씨가 캘리포니아와 북서부 지역에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현상으로 인해 많은 양의 관개 수요가 집계되었고 방목장, 목초지, 비가 필요한 여름작물에 스트레스가 되었다. 중부와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였으나, 서부지역에서는

고온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남서부 지역에서는 구름과 비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억제되었다. 북서부 지역의 경우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적어도 10°F가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07/07~07/13)

미 동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났지만, 태평양 연안의 북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인해 평년대비 평균보다 높은 기온이 형성되었다. 미시간 주의 경우 많은 양의 비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여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알팔파 건조 수확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하였다.

■ 옥수수

주말 기준, 출사기에 진입한 옥수수는 34%로, 이는 전년대비 19%p 앞섰지만, 5년 평균대비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미주리 지역에서는 출사기에 진입한 옥수수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옥수수의 상태는 76%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지난주보다는 다소 앞선 상태이며, 전년 동기대비 10%p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04년 7월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기록되었다.

■ 대두

7월 13일 기준, 전국적으로 개화기에 진입한 대두는 41%로, 전년대비 17%p, 5년 평균대비 4%p 앞선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대두 재배지역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나타났지만, 대두의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건 지역 주간 대두 개화율은 20%p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대두의 상태는 72%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와는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년 동기대비 7%p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7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가을밀

주말 기준, 전국 가을 밀 수확량은 69%p로 전년대비 3%p, 5년 평균 대비 다소 앞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이다호,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텍사스, 워싱턴 지역을 제외하고 가을 밀 수확 상황은 5년 평균보다는 다소 늦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쌀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쌀 출수율은 24% 수준으로 전년대비 12%p, 5년 평균 대비 2%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쌀의 상태는 70%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동일한 수준이며, 전년동기 대비 2%p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07/06~07/12)

- 유럽: 정체된 태풍 전선이 넓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하였으며, 야외 농작업은 지연되었지만, 여름작물의 생산전망은 밝게 하였다. 적정하거나 많은 양의 비가 프랑스 북부(10~100mm)와 영국, 폴란드 지역에 내렸으며, 가을밀과 유채의 수확은 중단되었지만 여름작물의 재생산을 위한 충분한 토양 수분은 유지되었다. 독일 동부와 폴

란드 서부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바람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수확되지 못한 밀과 유채가 있었다. 프랑스 남서부에서 이탈리아 북부, 발칸반도의 경우 25~100mm의 비가 내렸고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재생산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었지만 아직 수확전인 가을밀의 품질 상태에 대한 우려는 증가하고 있었다. 다소간 적은 비(2~20mm)가 중부와 북부 스페인에 내렸으며, 관개된 여름 곡물들의 토양 수분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다. 동부 유럽의 경우 기온은 평균 2~6°C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와 남부 유럽의 경우 구름과 비로 인해 평년대비 기온이 평균 2~6°C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구소련(서부): 대체로 건조하고 온난한 날씨가 남부 지역의 야외 농작업을 촉진하였고, 국지적으로 내린 많은 양의 비는 중부와 서부 러시아 지역에서 여름작물의 생산수확 전망을 높였다. 카자흐스탄 중부에서 서부지역에 발생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고기압은 남부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러시아 남부 지역의 평년대비 기온은 평균보다 1~2°C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은 평년대비 4°C 이상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주요 가을 밀 재배지역이 밀집한 우크라이나 남부지역과 러시아 남부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팽배하였으며, 가을 밀 수확이 점차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러시아 남부지역에 이르기까지 국지적으로 내린 많은 양의 비와 폭풍(10~70mm)으로 인해 야외 농작업은 지연되었지만, 옥수수와 해바라기에 필요한 토양 수분은 충족된 상황이다. 한편, 많은 양의 비와 폭풍은 모르도바 지역과 북부 및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북서부 지역에 10~75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소곡물류와 재생산 시기에 진입한 여름작물의 충전에 효과적이었다. 반대로 불가리아 지역에서는 서늘한 날씨(1~3°C)가 팽배하였으며, 봄 밀 성장을 촉진하였다.
- 동아시아: 중국에 내린 비는 여름작물의 수분을 공급하기에는 이로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분 부족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중국 북동부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50mm로, 옥수수와 대두의 토양 수분은 증대시켰으며, 이 지역의 계절적 강수량은 지난해 대비 비슷하거나 조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 발달에 이상적인 기온인 20~25°C(평년대비 1~2°C 낮음)를 기록하였다. 남부 지역에서는 총 강수량이 10mm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쯔강 유역에서는 소나기(25~50mm)가 내려 여름작물, 특히 쌀의 수분공급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최근 쌀 수확 전망은 지속적인 강수량이 기록됨에 따라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대다수 지역에서는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일본의 경우 태풍 너구리가 남부 큐슈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빠른 속도로 영향력이 쇠퇴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서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파괴적인 바람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한편, 넓은 지역에 내린 비(50~150mm)로 인해 혼슈 남부 지역에서는 쌀의 수분 공급이 유지되었으며, 계절적인 수분 부족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었다.
- 호주: 호주 서부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소나기(10~30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렸고, 겨울 곡물과 유채의 생산전망을 좋음/매우 좋음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호주 남부 지역인 빅토리아,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5~20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려, 밀, 보리, 카놀라의 수립단계에 좋은 조건을 유지했다.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씨(강수량 5mm 미만)는 북부 빅토리아와 남부 뉴사우스웨일즈에 팽배하게 나타났다. 이 지역 최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초기 작물 생산량 전망을 좋음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밀벨트 지역인 북부 뉴사우스웨일즈와 남부 퀸즐랜드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2주 연속해서 지속되어, 밀과 다른 겨울 작물의 생육 발달에 필요한 표토층의 수분을 감소시켰다. 밀 벨트 지역에서 기온은 대체로 계절에 부합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평균 1°C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 남부 아르헨티나 지역의 경우 비가 내렸고, 야외 농작업은 지연되었다. Buenos Aires 지역의 총 강수량은 10~50mm를 기록하였으며, 남부 겨울 곡물 재배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곡물의 수립에 요구되는 충분한 수분 단계를 유지하였으며, 더욱 건조한 기상 조건은 야외 농작업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La Pampa, 남부 생산지역인 Cordoba, Santa Fe, Entre Rios) 총 강수량은 10mm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비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1~2°C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10°C 중반에서 20°C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동부 콘벨트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점차 약해졌고, 서부지역 총 강수량은 10mm, Misiones 지역 총 강수량은 50mm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은 야외 농작업에 적합한 건조한 날씨가 형성되었지만, 남아있는 습윤한 기상 조건이 문제가 되었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는 북서부 지역에 지배적이었으며,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초·중반을 기록하였다. 7월 10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옥수수 수확률은 65%로, 전년의 92%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가을밀의 파종율은 70%p로 전년대비 다소 뒤쳐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Buenos Aires 지역 밀 생산자들에 의하면, 금년 밀 파종율은 금년 47%p로 전년동기 대비 12%p가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남부 지역에 내리던 소나기는 점차 약화되었으며, 남부 밀 생산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는 일부 완화되었다. Rio Grande do Sul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10~100mm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건조한 날씨가 더 선호되기도 하였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부 Parana, 남부 Mato Grosso do Sul, 동부 Paraguay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주 후반에 내렸다. 비(5~25mm)는 Sao Paulo와 Minas Gerais 지역에 발생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확에 방해가 되었다. 남부 지역,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1~2°C 높았고(낮 최고 기온은 20°C 초반~후반), 가을밀과 옥수수의 후기 생육을 도왔다. 한편, 계절적으로 온난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 내륙 지역에서 재배중인 옥수수와 면화의 성숙과 수확이 촉진되었다. 한편, 산발적이고, 소량으로 내린 비가 북동부 연안지역에 지속되었으며, Espirito Santo와 Rio de Janeiro의 커피 재배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강수량(25mm 이상)이 기록되었다.